“어머니 생각나 돕지 않을 수 없었죠”

이동섭 동광고속버스 기사 선행 ‘훈훈’

안과 수술 결과 듣기 위해 홀로 광주행 버스 탄 곡성 노인
병원 몰라 ‘발 동동’…이 기사, 점심도 거르고 병원 수소문
간호사에 경찰 도움 요청도…버스 탑승 할머니 보고 ‘안도’

〈단독〉 “쌀쌀한 날씨에 외투 한 장 걸치지 않은 어르신 모습에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나 돕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밭일에 바쁜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홀로 광주 병원을 찾아 나선 어르신을 열일 제치고 도운 광주의 한 고속버스 기사가 입소문을 타고 있다.

광주시가 운영하는 ‘시민광장 광주ON’ 홈페이지 ‘칭찬합니다’ 게시판에 지난 20일 ‘동광고속버스 이동섭 기사님을 칭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곡성에 살고 있는 80대 이재형(여)씨의 딸이라고 밝힌 누리꾼이 작성한 글이다.

이 할머니는 지난달 12일 갑자기 곡성 집에서 사라졌다. 다음날 백내장 수술 결과를 확인하러 가족들과 광주의 안과병원에 가기로 했는데 하루종일 찾을 수 없었다.

이 할머니는 밭일에 바쁜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홀로 광주행 버스를 탔다.

이동섭(62)기사가 운전하던 버스가 광주에 다다르자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이 할머니는 자신이 수술한 병원의 이름조차 제대로 알지 못해 승객들에게 ‘안과에 가야 하는데 길을 잘 모르니 도와달라’고 연신 부탁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승객들 아무도 이씨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았다. 거듭된 이씨의 부탁에 승객들은 손사래치며 일제히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이 상황을 본 버스기사인 이동섭씨가 선뜻 나섰다.

이씨는 “제가 모셔다 드리겠다”며 “버스에 서 있으면 위험하니 앉아계시라”고 말하고 이 할머니를 안정시켰다.

버스가 광주에 도착한 시각은 오전 11시 50분께, 점심시간을 앞두고 있었지만 이씨는 식사를 거르기로 했다. 이 할머니를 외면하고 돌아설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다음 배차까지 1시간밖에 남지 않아 오래 시간을 비울 수 없는 상황에도 이씨를 도울 수 밖에 없었던 이유로 “차도 많고 복잡해 병원에 잘 찾아갈 수 있을지 걱정됐다”며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냥 보내드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유스퀘어 터미널 밖으로 나온 이 기사는 횡단보도를 건너 한 대형 안과를 찾았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이씨의 수술 기록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 기사는 주변 병원을 다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할머니 손을 잡고 다시 건너편 신세계 안과를 찾았고 이씨의 수술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씨는 할머니를 진료실에 들여보낸 후에도 쉽게 발걸음을 뗄 수 없었다. 다음 배차 시간이 30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라 이씨가 곡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을 살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신세계안과 간호사를 붙잡고 “번거롭겠지만 어르신 진료가 끝나거든 꼭 경찰에 요청해서 곡성행 표를 끊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에서 곡성 석곡행 버스는 하루 4편밖에 없는데다 바로 다음 차인 오후 3시 30분 차를 놓치면 밤 9시 30분차를 타야했기 때문이다.

어렵사리 의사를 만난 이 할머니는 간호사와 경찰관의 도움으로 곡성행 3시 30분 버스에 올랐다. 이씨는 다른 기사가 운전하는 이 차에 할머니가 탔는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좌석에 앉아있는 이씨를 보자 이 기사는 그제서야 안도하며 치료를 잘 받았는지 물었고 이씨는 “기사님 덕분에 치료도 받고 약도 타고 경찰관 도움으로 표도 끊었습니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동섭 동광고속 기사가 광주시 서구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 정차된 버스 앞에 서 있다. 〈이동섭씨 제공〉

이 기사는 “다음부터는 자식들 도움 받으세요. 자식들에게 혼나면 말대꾸하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안한다고 말하세요”라고 웃으며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사셔야 합니다”라고 당부했다.

이씨의 딸은 게시글을 통해 “어머니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덜컥 겁이 났었는데 요즘같이 각박한 세상에 기사님의 진심어린 배려에 감동을 받았다”며 “시간되실 때 꼭 한번 찾아뵙고 싶다”고 말했다.

고속버스 운전 경력 38년의 이 기사는 “그동안 승객들에게 핍박도 받고, 무시도 당하며 ‘내가 왜 운전을 하고 있나’ 회의가 들 때도 있었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사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당연히 기사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웃어보였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전남 대학 미충원 ‘전국 두배’

18곳 정시 추가모집 3천명 육박

2024학년도 광주·전남지역 대입 정시 추가모집 인원이 3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시자료(21일 오후 6시 기준)를 분석한 결과 202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광주지역 9개 대학이 1470명을 선발하지 못했다. 전남 8개 대학도 1458명을 뽑지 못했다. 학교당 평균으로 따지면 전남은 182명, 광주는 163명을 채우지 못했다. 광주와 전남의 학교당 미충원 인원은 전국 평균(78명)의 두배를 웃돌았다.

지난해 광주와 전남지역 대학 18곳이 3029명을 선발하지 못했으나 올해는 소폭줄었다.

학생 수 감소세로 충원난을 겪는 대학들이 전화 통보 등을 통해 정시 추가합격을 진행하고 학생·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등록을 유도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전국적으로는 169개 대학이 1만3148명을 선발하지 못했다.

서울권은 31개교에서 618명(미선발 인원의 4.7%), 경인권은 35개 대학에서 935명(7.1%), 지방권은 103개 대학에서 1만1595명(88.2%)을 선발하지 못했다.

지난해 정시 미선발에 따른 추가모집 인원(1만7439명)과 비교하면 24.6%(4291명)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비수도권에서는 경북 9개 대학이 1653명, 부산 13개 대학이 1569명을 선발하지 못했다.

서울권에서는 서경대 111명, 세종대 53명, 한성대 34명, 홍익대 31명, 국민대 29명, 중앙대 19명, 한국외대 18명, 한양대 17명, 서울시립대 3명 등 미선발 인원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이달 29일까지 2024학년도 대입 추가모집을 진행한다.

정시 미선발에 따른 비수도권 대학 추가모집은 2021학년도 2만3767명, 2022학년도 1만6640명, 2023학년도 1만5579명 등으로 감소 추세다.

종로학원은 “지방권 대학들의 모집정원 조정 등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책이 어느 정도 결과로 나타나는 상황”이라며 “다만, 수도권 모집정원 확대, 의대 정원 증원 등과 맞물려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연합뉴스

나도 크리에이터 광주시 북구 용봉동 북구청 전산교육장에서 지난 23일 열린 컴퓨터 교실에 참가한 주민들이 유튜브 채널 개설 방법과 한글 프로그램 사용법 등을 배우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전남 올해도 ‘무더운 봄’

3~5월 기온 평년 웃돌 듯

광주·전남 지역 올해 봄은 짧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봄철 기온이 평년 기온을 웃도는 ‘무더운 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이 25일 공개한 오는 3~5월의 기상 예보를 담은 ‘3개월 기상 전망’에 따르면 오는 3월, 4월의 광주·전남 월 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로 예보됐다. 광주·전남의 평년 3월 월평균기온은 6.9~7.7도, 4월은 12.2~13.2도다.

5월의 월 평균기온은 평년(17.4~18.0도)보다 높을 확률이 50%에 달해 늦봄부터 초여름 더위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상청은 3~5월 따뜻한 남쪽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많이 받아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한반도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자주 받으면서 비 또한 평년에 비해 많이 올 것으로 예보됐다.

3월 월강수량은 평년(61.6~91.3㎜)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40%이며, 4월은 평년(80.5~119.2㎜)보다 비가 더 많이 확률이 50%다. 5월 월강수량은 평년(110.1~131.4㎜)과 비슷할 확률이 50%로 예측됐다.

기상청은 올 봄 우리나라 동쪽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면서 우리나라로 고온다습한 남서풍을 밀어넣어 기온이 상승하고 강수량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은 “현재 북서태평양의 해수면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상태인데, 이 상태가 이어지면 바다의 열기가 대기로 전해져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우리나라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광주 남구, 작은도서관 야간·주말 운영시간 확대

광주시 남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모든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을 확대한다.

남구는 작은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직영 작은도서관 개방 시간을 평일 오전 9시부터 밤 9~10시까지 늘리고 주말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까지만 운영됐다. 이번 운영시간 확대는 야간 운영을 시범도입한 봉선2동 작은도서관의 하루 평균 야간 이용자가 41명에 달했기 때문이다.

남구 작은도서관은 76곳(공립 18곳, 사립 58곳)이 운영중이며 직영과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중 직영 작은도서관은 총 10곳(노들행복, 달뫼, 대촌동 생태, 물빛공원, 방림1동 꽃마을, 봉선2동, 월산4동, 월산5동, 푸른길(휴관), 효나눔)이다.

또 다음달부터 직영 작은도서관에서는 유아, 초등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진으로 자서전쓰기’, ‘캘리그라피’, ‘시낭송 교실’ 등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1954~2024)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겨자씨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교회)
총 장 김경윤 박사

2024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신입생 추가모집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모집인원
계열	학과	정시
인문사회	신학과	○
인문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
사범	유아교육과	○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
총계		○○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24. 2. 22(목) ~ 28(수) · 전 형 일 : 2024. 2. 28(수) 18시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곳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그대를 기다립니다!”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계를 향하여

정시추가모집 원서접수는
2024. 2. 22(목) ~ 28(수)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